

국내 첫 복제송아지 탄생 서울대 黃禹錫교수팀, 세계 최초 개가

국내 연구진이 암수의 수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체세포의 복제기법으로 우수한 형질의 젖소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송아지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黃禹錫교수팀은 지난 2월12일 경기도 화성군의 한 목장에서 체세포 복제기법으로 체외수정시킨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 키워온 암컷 송아지가 태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복제송아지의 탄생은 젖소로는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소를 복제한 일본과 뉴질랜드, 쥐를 복제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黃교수가 '영롱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송아지는 출산 당시의 체중이 43kg으로 건강한 상태로 자라고 있으며 체세포를 제공한 소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黃교수팀은 우수한 형질의 복제송아지를 탄생시키기 위해 우유 생산량이 연간 1만8천kg으로 보통 소의 3배에 달하며 병에 강한 젖소에서 체세포를 채취했다. 이를 미리 준비한 탈핵난자(핵을 제거한 난자)에 이식하고 전기자극으로 탈핵난자와 체세포 핵을 융합시켜 수정란을 만든 다음 이를 대리모 소에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97년 영국 로슬린연구소 연구팀이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것과 같은 기법이지만 체세포 핵을 난자에 이식하기 전에 염색체 검사를 실시, 유산과 유전적 기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를 제거한 진일보한 기술이다.

한국형 인공심장, 미국에서 호평 송아지에 이식성공, 성능 훌륭

국내에서 개발된 체내 장착형 인공심장이 최근 미국에서 송아지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됐다. 서울대의대 의공학

과 閔丙九교수팀은 지난 2월12일, 94년 개발한 한국형 인공심장을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심장센터에서 85kg인 송아지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했으며 송아지는 수술 1시간만에 혈압과 혈류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됐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먹고 걷고 배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閔교수팀은 수술을 맡은 하라사키박사가 한국형 인공심장은 미국에서 개발중인 것에 비해 작으면서도 박동량이 많아 인간의 심장과 비슷한 장점을 지녔음이 입증됐다고 발표했다. 하라사키박사팀은 이에 앞서 사망 직후의 시체 8구에 한국형 인공심장을 이식한 결과 인체 이식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인공심장은 중량이 6백80g으로 체내에 장착하면 전기의 힘으로 박동하는 전기구동형이다. 82년 미국 유타대가 세계 최초로 이식한 체외장착형 심장과는 다르다. 아직까지 인체 안에 장착하는 인공심장은 개발되지 않았다.

재미 27세 과학자 임정복 단서 찾았다 버클리대 류수진씨, 「네이처」지 논문 실려

재미 한국인 여성과학자가 암의 생성원인을 밝힐 중요한 단서를 발견, 과학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8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준비중인 류수진(27)씨.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인체 세포내 유전자에 'CRSP'로 명명한 단백질이 함유돼 있다는 류씨의 논문을 실었다. CRSP는 유전정보를 인체 세포의 필요에 맞게 분석하는 과정인 전사(轉寫)에 필수 요소가 된다. 전사과정에서 변형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발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류씨가 발견한 CRSP는 전사절차를 밝혀 암발생 원인 규명과 유전병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잡지는 전했다.

정부, 핵심산업기술 3천5백85억원 지원

과학기술부는 최근 핵심산업기술을 육성하는 특정연구

개발사업에 올해 총 3천5백8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2001년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1세기 프론티어연구사업(가칭)과 핵심기술 연구실을 발굴, 지원하는 국가지정연구실사업(가칭)이 새로 착수된다. 또 미래에는 부가가치가 높지만 민간수요가 불투명한 연구사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을 구매하는 기술구매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의 기초연구에 지원하는 기초과학 연구사업에는 지난해보다 25.6%가 늘어난 1천4백58억원을 투입한다.

李相旭 박사, 亞太안과학회 최고공로상 받아

李相旭(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전 아태안과학회장이 3월7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7차 아태안과학회에서 학회가 주는 최고 공로상인 호세 리잘 메달을 받았다.

이 메달은 안과의사로서 필리핀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잘박사의 이름을 딴 것으로 학문적 업적과 학회에 공헌이 큰 사람에게 수여된다.

재미과학자 피터 김, 과기한림원 회원에

피터김 미국 MIT대 교수(40·분자생물학)가 지난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기총



▲ 피터 김

회에서 최연소 정회원으로 선임됐다. 김교수는 97년 에이즈바이러스의 인체 침투 메커니즘을 밝혀내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 출신의 과학자 가운데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金靈燁 박사, 3·1문화상 기술상에 선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金靈燁박사가 3·1문화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3·1문화상 기술상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3·1문화상은 학술상, 예술상, 기술상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金박사는 3월1일 홀리데이 인 서울호텔 무궁화홀에서 상패와 휘장, 상금 2천만원을 수상했다.



▲ KIST정보자료·소자연구센터 김정엽박사가 3.1문화상을 수여받고 있다.

李容珪 박사, 한국심장재단 이사장에

李容珪 가톨릭의대 명예교수가 최근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제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李이사장은 가톨릭대 성모병원장, 인하대 의무부총장을 지냈으며 외과 전문의로 지난 69년에는 국내 최초로 콩팥이식수술을 성공시켰다. **SD**

崔先錄 (전 서울신문 부국장)